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소액서민금융재단, 저소득층 소액보험에 40억원 지원

- 금융위는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‘서민금융 활성화’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소액대출과 저소득층의 소액보험 지원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시행하기로 함.
 - 이 사업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하여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경우 총 150억원(1개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10억원까지),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에는 총 4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게 됨.
- 소액보험 상품으로는 빈곤아동보험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이 있으며, 저소득 빈곤아동에게는 보험료의 95%를 지원(5% 본인부담)하고 장애인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.
 - 빈곤아동보험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일시납 형태의 보장성보험이며, 보험료 수준은 수혜대상자 1인당 105만원 내외(재단 지원금 100만원 내외)임.
 - 반면,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은 1년 만기 일시납의 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 수준은 해당시설 추천 후 실사를 통하여 별도로 산정할 계획임.
- 이 같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소액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빈곤아동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빈곤아동 및 그 부양자 약 6,000명이 후유장해보험금, 미래설계자금 등을 혜택 받게 됨.
 -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은 전국의 약 770개 시설이 재산손해, 신체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됨.
- 이후 재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7월중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금 교부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힘.

(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, 7/7)